

경제 한파 속 이웃사랑 온도 '쑥쑥'

개인 소액 기부 크게 늘어 '나눔 문화' 정착 ... 광주 84℃·전남 91℃

〈16억 8천여만원〉 〈42억 4천여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09 나눔캠페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이웃사랑 온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소액 기부가 크게 늘어 불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희망 2009 나눔캠페인' 결과 19일 현재 광주에선 16억8천여만원(사람의 행복온도 84℃), 전남은 42억4천여만

원(사람의 행복온도 91℃)을 각각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 6%, 전남은 7%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광주 20억원, 전남은 46억8천만원이다.

특히 개인기부 건수는 광주가 2천520건에서 1만282건으로 20.7%, 전남은 6천2천에서 7천133건으로 18.8% 증가했다.

일반 시민이 주로 참여하는 지로

모금과 쌓이나 연탄 등 물품 모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설을 앞두고 개인들의 소액 성금이 줄을 이으면서 예년 수준을 추월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모금액은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라며 "이러한 추이가 이어진다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모금회는 '희망 2009 나눔 캠페인'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사랑의 전화와 사랑의 계좌, 가두모금, 홈페이지 기부, 한사랑캠페인, 행복주주캠페인 등 다양한 모금운동을 통해 행복온도를 10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개인의 소액 기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불황이 심화될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만큼 더욱 많은 성금이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의장선거 '억대 뇌물' 국회의원 부인 등 3명에 '실형'

광주지방법원

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구의회 의장, 구의원 등 3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1일 제3차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 주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받은 1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양 판사는 또 주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은초(64) 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뇌물 거기에 출마하면서 역시 돈을 건넨 김모(여·68) 구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의 전형으로 풀

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불법 금권 선거로 물드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는 전과가 없고 죄를 누워온 점은 정상이 참치되나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 데다 이 중 8천만원은 돌려주지 않은 점을, 최씨와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각각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7월 실시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남편 김 의원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의장으로부터 8천만원, 김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장 및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710) 김중두



광주·전남서도 '용산 참사' 규탄 촛불 집회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용산지역 철거민 강제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연대 회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갖고 밀리오투~금남로~옛 도청까지 행진을 벌였다.

진보연대는 매일 옛 삼복서점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논의를 거쳐 조만간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목포 진보연대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한 뒤 "서울시와 건설 업체들은 대책 없는 주민 물아내기를 중단하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이주와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해남지역위원 10여명도 이날 오후 해남읍 광주은행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용산 참사' 금남로 시위

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회원과 시민 등 100여명은 2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서울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최경호기자 choi@kwangju.co.kr

'용산 참사' 경찰, 인화물질 알고도 진압

시신 6구 신원 확인

'용산 참사'와 관련, 철거민 등이 농성을 벌이던 망루에 인화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부는 20일 새벽 컨테이너로 옥상에 투입했던 경찰 특공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농성자들이 시신 등 인화

물질을 보유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진압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농성자들이 시신을 뿌리는 것을 봤고 (망루 안에) 인화물질을 보유한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진압 작전을 폈다"며 "시신 6구는 망루의 3층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그 수량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사망자 6명 중

시신이 밝혀지지 않던 1구의 시신이 한모(57·경기 수원)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사망자 6명(경찰관 1명 포함)의 시신이 모두 밝혀졌다. 농성 사망자는 마지막으로 신원이 드러난 한씨 외에 이날 오전 추격로 확인된 윤모(48·서울 중구)씨, 이모(70·서울 용산구)씨, 양모(55·서울 관악구)씨, 이모(50·경기 용인)씨 등 5명이다.

연습스

친구 감금·폭행·성매매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광주북부경찰 8명 체포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자신의 원룸으로 친구를 유인한 뒤 감금·폭행, 성매매를 강요한 문모(16·고1 중퇴)양 등 10대 8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양 등은 지난 달 29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원룸으로 친구 Y(16)양을 불러낸 뒤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7명을 원룸으로 불러 Y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들에게 5만~10만원의 화대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관계를 거부한 Y양을 집단폭행하는 등 10여 일 동안 감금·폭행했으며 가출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이용, 원룸을 빠져나온 Y양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붙잡았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 송유관 매립지

30대 추정 시신 발견

21일 낮 12시25분 순천시 승주읍 송유관 매립지에서 신원불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국도변에서 송유관까지 10m 가량 파들여간 땅굴에서 기를 매 잠긴 채 발견됐다. 송유관은 지름 약 2.5cm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

는 전기드릴이 꽂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땅굴에 들어갔다 가 가스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땅굴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기름 8t이 하천으로 유출돼 소방차, 경찰 등 30여명이 동원돼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 땅굴과 연결된 주택에는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고, 경찰은 이 컨테이너와 땅굴이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and contact information.

신상원 '디스크 치료' 국가 상대 소송

○10년 전 신출귀몰한 탈주 행각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신상원(42·청송고교 2수갑)씨가 최근 고도소추의 인권 침해 이유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21일 대구지법 의정지원은 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국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500만원의 지급하라"고 판결.

○신씨는 지난해 2월 "고도소추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천500만원)을 제기.

○고정당국은 신씨의 탈주를 우려해 치료 요구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씨와 국가는 그러나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

Large advertisement for 'Elysia' (아이엘리시아) featuring food images, menu item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ext about 'Bong/Sun/Dong' and 'Elysia' brand.

Advertisement for 'Yoksun Korea' (주)옥션코리아, listing various real estate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features. Includes contact info for 김갑순.